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배터리3사... IRA 변수 등에 긴장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4분기 매출액·영업이익 증가 예상 전기차 판매 증가세로 수요 늘어

美 IRA 요건 적용시기 3월로 연기 중국, 美 시장 접근 여지 많아져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도 촉각

공급망 위기와 경기침체의 위기 속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서 배터리 기업들이 '호실적' 주자로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올해 1분기부터 배터리 업계가 마주할 대외적 상황이 산적한 상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로 불리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은 이달 내에 잠정실적을 발표하며 지난해 실적을 정리하며 올 한해 '도약'할 준비를 할 예정이다.

9일 LG에너지솔루션은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43.4% 증



SK온 배터리를 장착한 포드 차량

/SK이노베이션

가한 25조5986억원, 영업이익은 57.9%가 늘어난 1조2137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4분기만 보면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1.6%, 전년 동기대비로는 92.3%가 증가한 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에 비해서는 54.5%가 줄었지만 전년 같은 기간 보다는 213.6%가 개선된 2374억원을 나타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SDI도 55.2% 늘어난 매출로 4분기 매출액 5조9209억원, 영업이익은 120.6% 늘어난 5862억원으로 예측됐다.

모기업으로 SK이노베이션을 두고 있는 SK온은 비상장사로 추정치가 따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올해 고대하던 흑자전환을 꿈을 이룰 시점이 도래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배터리 3사 모두 생산체제를 구축하느라 투자한 결과를 차츰 거두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올해도 전기차 판매율이 세계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 배터리 수요가 급해진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러브콜'도 많아질 상황이다. 이로 인한 배터리 업계의 실적은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분기는 배터리 업계가 넘어야 할 대외적인 변수들도 명확해지는 시기다. 미국이 IRA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

건 적용 시기를 3월로 연기하면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다시금 접근할 여지가 많아졌다. 당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중국배터리기업 뿐만 아니라 소재까지 규제하는 방안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 '호재'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작년 말 나온 백서에는 이 부분이 완화됐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조항이 수정됐다.

원래는 북미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고 가공한 광물을 써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북미나 미국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부가 가치를 창출하면 중국업체라도 미국에

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가 뚜렷한 법안들인데 지금 나온 내용만으로 중국이 미국 IRA를 피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EU(유럽연합)에서도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표할 예정으로 해당 법안도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금속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에서 광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EU의 중국·러시아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공급망 다각화 작업 중이기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법안의 세부내용 발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두 법안 모두 세부 내용이 나와야 업계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며 "국내 배터리 3사가 마주한 대외환경이 쉽지만은 않지만, 글로벌 점유율 높이기 위한 완성차 고객사 확보와 기술력 향상, 공급망 확보에 열을 올리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납품대금 2.3조 조기 지급

설 앞두고 협력사 자금 부담 완화 온누리상품권 95억어치 구매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설 앞두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과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통해 생생활동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설 명절을 앞둔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2조 3766억 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약 95억 원을 구매해 그룹사 임직원에게 지급해 전통시장 활성화 등 내수 진작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현대제철·현대건설·현대오일에너지·현대위아·현대트랜시스 등에 부품 및 원자재, 소

모품 등을 납품하는 600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협력사들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27일 일찍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고금리 기조 속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으로 협력사들의 자금 소요가 설 명절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을 해소하는 데 납품대금 조기 지급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도 설 이전에 2, 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수혜 대상을 늘리고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설, 추석 명절 전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해왔으며,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각각 1조4402억원, 1조8524억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지난해 연말엔 높은 금리에 따른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현대자동차가 협력사에 납품대금 3531억 원을 조기 지급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의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고금리로 힘든 상황 속 협력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 온누리상품권 약 95억 원을 구매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



CES2023 LG이노텍 부스에 관람객들이 몰려있다.

LG이노텍, CES 성공 데뷔... 2만 인파 몰려

일반관람 오픈 부스 첫 운영 전자 신기술 16종 대거 선보

LG이노텍이 첫 CES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자평했다.

LG이노텍은 지난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3에 오픈 부스를 운영하며 2만명 이상 관람객을 맞이했다.

LG이노텍이 오픈 부스를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비공개 형태로 특정 고객사에만 전시관을 운영했지만, 이번에는 일반 관람객에도 다양한 혁신 제품을 소개했다. LG이노텍은 이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이노텍은 모빌리티 분야 전시가 집중된 웨스트홀에 부스를 마련했다. 광학솔루션과 기관 소재는 물론, 전장 부품 신기술 16종을 대거 선보였다. 부스 중앙에 신기술을 담은 자율주행차량 목업을 통해 직관적으로 소개하며 관람객들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전략도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었다.

특히 LG이노텍 핵심 기술이 자율주행에서 시너지를 일으키는데에 관심이

높았다. 카메라 모듈과 레이더 모듈 장점을 융합한 '센서 퓨전'이 대표적. 완전자율주행시대를 주도할 기술 경쟁력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체험형 콘텐츠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직접 블록을 쌓아 FC-BGA 기판을 완성하며 LG이노텍의 고다층·고집적 기판 기술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한 공간 등 어려운 기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잠재 고객 확보 성과도 있었다. LG이노텍에 따르면 고객사 미팅 건수가 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부스 현장에서 100건 이상 미팅을 성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민준상품전략담당(상무)은 "평소 볼 수 없었던 스마트폰, 자동차 속 다양한 부품들을 밖으로 꺼내 전시함으로써, 미래 혁신 제품은 부품이 좌우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철용 사장은 "이번 CES는 LG이노텍의 첨단 기술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소재부품 선도 기업으로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제주항공, 국내선 여객 점유율 18.2%... 3년 연속 '1위'

지난해 648만여명 수송

제주항공이 지난해 국내선에서만 648만여명을 수송해 점유율 18.2%를 기록하며 국내선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제주항공 측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실시간 통계를 활용해 지난해 국내선 여객 수송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역대 최대인 648만2588명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수송객수인 645만9000명 보다 2만3000여명이 많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보다 160만명이 높은 수치다. 지난 2017년 464만명이 제주항공을



제주항공이 국내선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제주항공

이용한 이후 탑승객이 지속적으로 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여행심리 위축 등으로 432만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2021년에는 645만명, 2022년 648만명대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제주항공 국내선 탑승객 중 제주~김포/부산/청주/대구 등 제주기점 노선에 543만여 명이 탑승해 전체의 약 84%를 차지했다. 김포~부산/대구 등 내륙노선에는 약 16%인 104만여 명이 탑승했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전체 탑승객의 44%가량인 289만여 명이 제주~김포 노선을 이용했고 김포~부산 노선(83만여 명), 제주~부산 노선(77만여 명)이 뒤를 이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얼마 전 한·일 노선 수송객 수 1위에 이어, 국내선에서도 3년 연속 여객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